

2017 가을

제17권 3호 통권6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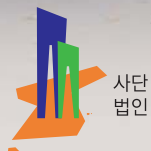
햇볕

2·28

시 론 2·28과 오늘의 한국

특 집 제17차 2·28민주포럼-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실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2·28기념중앙공원



사단
법인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경제성장의 백년

글로벌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 - 삼익THK



격동의 세월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이란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 자양분에 삼익THK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반세기를 넘어 희망찬 백년대계를 위해
성실과 노력으로 새 뜻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꿈의 이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 LM Guide



• Ball Screw



• CDM & SDM



• WTR



• LTR



• 다관절 로봇



2·28

햇빛

題字 : 蕙汀 柳永喜

2017년 가을 제17권 3호 통권67호



시론

04 2·28과 오늘의 한국 / 김문환

2·28특집

07 제17차 2·28민주포럼

-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실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09 발제 1- 북한의 실정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의도 / 원정인

13 발제 2- 대한민국 공군의 대북전략과 전력 / 심청용

17 발제 3- 대한민국 육군의 대북전략과 대응전력 / 하대성

21 발제 4- 대한민국 해군의 대북전략방안과 전력건설방향 고찰 / 반길주

특별기고

24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유권자의 역할 / 김상훈

자유기고

28 선비들은 서원에서 무엇을 공부하였는가? / 구분옥

문예광장

36 시·메타세쿼이아 숲에서 / 장하빈

37 시조·연리지 / 윤경희

38 수필·덤 / 장호병

40 제17회 민주운동 글짓기공모금상 수상작

2·28행사

43 2017 상반기 2·28인문학 강좌 개최

44 제9차 고교학생 민주시민 아카데미

45 2·28차세대 주역 워크숍 개최

46 2·28민주운동 하반기 워크숍 실시

48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49 2·28주역 행안부 장관을 만나다

49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방문

50 창작연극 『하늘이 붉었던 날』



◀ 표지: 가을빛 완연한 2·28기념중앙공원 입구

입회안내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대구은행 505-10-139462-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발행인] 노동일 | [편집인] 김약수 | 인 쇄 | 2017년 10월 17일 | 발행 | 2017년 10월 17일

[편집위원] 김약수, 박명철, 장영향, 이준복, 임병욱, 백재호

[발행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우 41968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1동,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228demo@hanmail.net Homepage: http://www.228.or.kr

[인쇄처] 신문사(053)474-9000

※ 본 책자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함.

2·28과 오늘의 한국



김 문 환
전 국민대 총장
전 경북고 재경 동창회장

- 흥분 속의 기억 잔재

2·28 학생의거가 일어난 1960년에 나는 이제 막 세상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14세의 경북중학교 2학년이었다. 당시 나는 고향 의성에서 대구 태평로의 외갓집에 기거하는 유학생이었다. 경북고 2학년이던 옆집의 김수사 형이 그 날 직접 데모에 참가하여 경찰서에 붙들려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 느꼈던 흥분이 이 글을 쓰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다시 내 몸 속에서 되살아난다.

2·28 의거의 발단은 지금 보아서는 어쩌면 너무나 순진한(?) 당국의 처사였다.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약 열흘 전에 위암으로 서거하여 국민들이 낙담한 차에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가 일요일인 2월 28일에 대구 수성 천변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이 유세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일요일에 강제 등교”를 강요하여 사달이 난 것이다. 보름 뒤인 3월 15일에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앞둔 당시의 사회 상황은 지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일반 국민은 관청이나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거역하여 필자보다 3년 선배가 되는 고등학생들이 등교 대신에 거리에 뛰쳐나가 민주화를 부르짖은 사건이 2·28이다.

작고한 김수사 형님의 말에 기억나는 것이 경찰이 주동자인 이대우 학생을 쉽게 알아낸 것이 신통하다고 하였다. 나는 보지도 못한 이대우라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고 큰 지성과 용기를 갖춘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20세 미만의 소년이 나라를 경천동지(驚天動地)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우연히 존경해 오던 이대우 형과 저녁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내가 본 이대우 선배님은 열린 문을 가진 “착한 선비”의 인상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인물은 사자같이 생긴 호걸풍의 인물이 아니라 정신력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었다.

- 최초의 민주혁명

2·28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의 사건은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3인조, 9인조라는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어 4·19 학생의거에 의한 민주혁명을 달성하는 도화선의 기폭제였기 때문이다. 2·28 사건에 이어 3·15 마산 사태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에 쓰러지고 결국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추풍낙엽처럼 해야하였다. 그러한 뒤에도 5·16 등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여 오늘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경제대국의 바탕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횃불이었던 2·28 학생의거는 근래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다. 만약 독재가 극에 달한 상황을 반전시킨 2·28 사건이 없었다면 4·19에 의한 민주화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이러한 2·28이 사회 기성인 층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구 지역의 까까머리 어린 고등학생들이 순수한 정신으로 독재에 항거한 비폭력의 지성적 민주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인 2·28은 국가 건설의 정신 기틀을 바로잡는 계몽운동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8 속에는 안으로는 고귀한 자기희생과 밖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이란 두 축의 수레바퀴가 들어있다. 불의에 항거한 2·28은 세상사에 가장 높은 기준이요, 덕목인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부르짖은 사건이다.

우리는 2·28 학생민주의거의 의미를 깊이 새겨 가슴속에 담는 역사적 맥락을 넘어 우리 한국인의 정신사적 측면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2·28 의거의 주역들도 이제 역사에서 퇴장할 시간이 되면서 2·28의 정신이 박제되어 남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세 가지의 제언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2·28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병(?)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모순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세 가지 제언

첫째, 2·28사건은 피 끓는 감성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이성으로 부르짖은 자유와 민주라는 이념에 대한 함성이었다. 지성과 용기로서 불의에 항거하며 올바르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부르짖음이었다. 힘없는 청소년들이 부정선거의 규탄을 넘어 정의로운 시민의식을 고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었다. 도덕(ethos)이 힘(kratos)을 이겨 정의를 앞세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불의에 항거한 2·28의 정신 속에는 내가 남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친 희생이 녹아있다. 이러한 희생정신이 바로 도덕과 윤리를 만드는 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는 2·28정신을 모범으로 하여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사회시민이 되어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에 더 노력해야 한다. 그를 위한 길은 윤리와 도덕의 양양(昂揚)에 있으며, 새로이 도덕재무장운동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2·28 학생민주의거가 대구라는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근대교육의 힘이었다. 당시 교육과정은 미약했는지 모르나 선비정신에 바탕한 좋은 스승들이 많았다. 필자도 교육계에서 생활하였지만 당시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투철한 교육관을 갖춘 분들이었다. 그 점에서 오늘날 물질만능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드높이고 선양하는 길은 교육의 혁신에 있으며, 최근 세상이 변하여 4차 산업이 도래하였다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세계는 고금의 변화가 없이 마찬가지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통한 자기 수양에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의 폭력이 잦아지면서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격화소양(隔靴搔痒)의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도 교육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자세히 보면 자기희생의 민주시민운동인 2·28정신 속에 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2·28은 사려 깊은 청소년들이 통찰력을 가진 시대정신으로 이룩한 민주화 혁명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나라를 통합해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근본 중의 근본이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의 시민들은 자유와 번영이 시민 군의 군사력 위에 터 잡고 있음을 처절하게 체험하였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간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과학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문화와 정신세계는 오히려 퇴보한 갈등의 사회가 되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2·28정신의 바탕 아래 올바른 정신세계의 함양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방안은 곧 성숙한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는 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자세는 독선이나 권위주의적 퇴행을 벗어나 남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생공영의 시민정신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이 미약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상생과 공영의 정신으로 사회에 널리 퍼진 대립과 상극의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



제17차 2·28민주포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실상과 대한민국의 대응

2017. 9. 6.(수) 13:30~17:00

주최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발제1: 북한의 실정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의도
- 발제2: 대한민국 공군의 대북전략과 전력
- 발제3: 대한민국 육군의 대북전략과 전력
- 발제4: 대한민국 해군의 대북전략방안과 전력건설방향 고찰



9월 6일(수) 오후, 본회 기념회관 4층 회의실에서 본회가 주최하고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 이정태)가 주관한 포럼행사가 개최되었다.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실상과 대한민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특히 국방의 중책을 맡고 있는 육·해·공 현역 전문가들과 평통자문위원이기도 한 탈북 전문가의 주제발표로, 참석한 90여 명 회원과 시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마침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우리의 안보현실과 주변국의 대응상태 등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진행내용 및 패널>

제1세션 사회: 이동관(매일신문 편집부국장)

제1과제: 북한의 실정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의도

발표: 원정인(경북대학교 석사과정/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토론: 조두진(매일신문 문화부 부장)

제2과제: 대한민국 공군의 대북전략과 전력

발표: 심청용(공군 군수사령관/공군소장)

토론: 이정태(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세션 사회: 윤순갑(경북대학교 교수)

제3과제: 대한민국 육군의 대북전략과 전력

발표: 하대성(국방부 국방정보본부/육군중령)

토론: 조규택(계명문화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제4과제: 대한민국 해군의 대북전략방안과 전력건설방향 고찰

발표: 반길주(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장/해군중령)

토론: 성장환(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발제 1

북한의 실정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의도

북한의 시장화와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을 중심으로



원 정 인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북한주민들은 이미 있던 ‘장마당’을 활성화하여 ‘시장’ 활동을 가속화하였다. 시장화는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체제의 집단주의 의식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배태시키고, 이와 함께 사유영역의 확대와 상인계급의 등장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장마당”이라 부르는 시장이 없으면 북한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2002년 7월 1일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연이은 개선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여 년 간의 시장화를 겪어오면서 북한사회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바꾸어나가는 “2차 사회”가 생겨났다. 여기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일명 ‘돈주’라 불리는 사람들과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장마당세대”들이다.

“장마당세대”들은 북한 안에서 과감하게 상행위를 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PC, 휴대폰 등을 널리 보급시키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비롯한 외국의 문물들을 북한 내부에 전파하는 전파자이기도 하다. 장마당세대의 성향은 어느 세대보다 영악한 ‘배금(拜金)주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조직생활과 통제를 우습게 아는 ‘반항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 세대가 배급, 의무교육, 무상치료 등 국가의 혜택을 체험했다면 이들 세대는 국가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학교에서 배우는 ‘당의 사랑과 배려’는 그야말로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다음은 ‘돈주’들의 활약이다. 이들은 북한의 당·정·군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편법과 부정·부패를 써가며 개인의 영리를 취해가는 사람들이다. 주목할 것은 ‘돈주’들의 경우 목돈을 가지고 위법이 되는 고리대를 편법을 써가면서, 그것을 전제로 한 사채업에서 유통, 부동산 등을 장악하고 북한경제를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여 년 간의 시장화를 겪어오면서 당국에 의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탄압이 심해졌으나, 주민들끼리는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사이라면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을 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모순과 남한사회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게는金正은이 핵을 만들든지, 어디다 쓰든지 관심을 가질 틈이 없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핵 개발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핵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전쟁이나 빨리 나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전쟁이라도 치르자.”, “너무 힘들다. 누가 죽든 결판내자”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한다.

金正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의도

북한이 다양한 동기에 의해 핵개발에 착수했지만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 동기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금도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핵을 북한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둘째,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남남갈등을 조성하여 남한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상시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핵무기는 저렴한 국방수단이라는 이유로 핵전략을 군사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여기고 핵무기를 북한의 군사전략 목표와 방법을 달성하는 것이며, 넷째,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외교협상의 수단으로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다섯째, 협상테이블에서 시간 끌기용이고, 생명연장을 위한 경제지원 유도용이자, 최후의 순간에 목숨담보용(last resort)이다.

(1)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金正은 시대에 이르러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핵무기 고도화의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金正은의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을 첫째, 핵능력의 제고, 둘째,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셋째, 운반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핵능력의 제고는 다섯 차례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상태이며, 김정은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완료해 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의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화성 14형의 고각 발사를 통해 최고 고도 3724.9km, 비행거리 998km를 확인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30~45도의 정상 각도 발사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9,000~10,000km의 사거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기술적으로 넘어서야 할 것으로는 대기권 재 진입기술과 원하는 공중지점에서의 폭발기술이라 하겠다.

(2)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적 배경

핵보유국 지위의 확보: 김정은은 핵과 운반수단의 개발을 통해 핵고도화 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지난 해 로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자신들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으며, 이러한 핵의 전파방지를 막겠다고 주장까지 하였다.

북미관계개선의 전기 마련: 북핵·미사일 고도화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후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핵·미사일 고도화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매우 효율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단이라 하겠다.

체제안정 기제 확보: 김정은은 대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상징조작 수단인 핵·미사일 개발의 성공으로, 북한의 국가 발전전략인 핵·경제 병진 전략으로 자신의 권력유지를 확보하고자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을 활용하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의 성공을 통해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함으로써 군사부문에 들어가는 재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향

북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그것이 유화적이든 강경한 것이든 북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며, 우리도 대화·제재, 군


사적·비군사적 측면에서 다층적·중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을 협상 조건으로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중층적 입장을 긴 호흡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기를 보면 북한이 생존의 필수적 수단으로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성급한 북한 붕괴론에 빠져 있거나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붕괴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핵 개발에 성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확장억제라는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 내지는 축소, 미국의 對韓 핵우산 공약의 폐기, 미국 내 주한미군의 철수 여론 조성 등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2371호 결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빠뜨리고 있음으로 이를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하며,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으로 침투시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모순성을 알게 하여 민심이탈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중국도 북한이 그냥 붕괴되기 보다는 핵을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주어서 완충지대(buffer zone)로 남아 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의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원하며,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주한미군이 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국면이라면 우리정부의 정책결정의 폭이 비교적 넓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중·미간의 협력과 동시에 대결과 경쟁의 측면도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 설치 및 MD체제 편입가능성에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차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 핵실험 경과 및 능력 등을 고려 시 핵포기 가능성은 희박하며 갈수록 위협이 증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시점에서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 체계를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정교한 체계를 갖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에게 머리 위의 핵 위협을 직시하고, 킬체인(Kill Chain)과 사드(THAAD)와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등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각성시키고 단호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발제 2

대한민국 공군의 대북전략과 전력



심 청 용
공군 군수사령관/공군소장

I. 서론

○발표의 목적은 집권 이후 변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전략을 알아보고, 남·북한의 군사전력 비교를 통한 북한 전력의 장단점 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과 대비 방안 수행을 위한 공군의 작전 소개

○발표 내용은 한국국방부에서 2016년 발간한 『2016 국방백서』와 연세대학교 항공 전략 연구원에서 2015년 발간한 『한국형 항공 전략사상 정립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내용을 골간으로 학술지 발표 자료와 방송·신문의 뉴스 보도 내용을 첨부하여 재편집 작성

II. 북한의 군사적 위협

1. 북한의 군사전략

가. 기본개념

○기본 개념은 유사시 기습공격으로 수도권을 석권하고 남한 지역을 단시일 내에 점령하는 속전속결 전



- 이는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한 것으로 대남전략 완수를 위해 ‘기습’과 ‘전후방 동시 공격’이 주요 내용
-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남한의 적화통일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활용한 기습 전략과 속도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음.

나. 군사전략

-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과 속전속결 전 그리고 배합 전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
- 핵심은 개전 초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 전쟁 승리
- ‘기습 전’은 정규군의 대규모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의 후방 침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 정규군이 주력부대와 기동 전력의 전진 배치는 북한이 기습공격으로 주도권을 조기에 탈취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
- ‘속전속결전’은 단기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전략.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미군의 증원, 남한의 인적·물적 자원이 군사 역량으로 나타나 장기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
- ‘배합 전략’이란 중국의 유격 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만든 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해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

2. 북한의 군사전력 배비방향 및 장·단점

가. 남·북한 군사전력 비교를 통한 북한의 군사전력 배비방향

- 육군의 주요 전력인 전차는 2천400여 대로 수적으로는 북한(4천300여 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 야포(남 5천700여 문·북 8천600여 문)와 다연장로켓·방사포(남 200여 문·북 5천500여 문)도 북한이 훨씬 많음.
- 해군 전력은 북한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반면 우리 해군은 10여 척, 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대부분 러시아제 구형 잠수함으로 원거리 작전이 제한.
- 공중 전력에서도 우리 군은 41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해 북한(810여 대)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 큰 우위를 보유.
- 북한은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미사일 전력도 우리에게 크게 앞섬.
-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 간의 우위를 비교한다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의 군사력이 훨씬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이 이런 전력의 질적 열세를 핵·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개발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함.

나. 장·단점

- 북한군의 강점은 먼저 수적인 우세임. 약 2배의 상비전력, 포병을 위시한 화력, 비정규전

을 수행할 20만의 특수전 부대, 대공포 역량, 그리고 핵 및 미사일과 생물학 등 대량살상 무기 위협

- 북한군의 약점은 첫째, 세계 4위의 대병력 유지에 필요한 경제력 부재, 둘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음. 셋째, 북한의 해군은 동·서해로 분할, 넷째, 북한은 제1제대에 병력 집중 배치로 전략적 예비전력의 배비가 약화.

III. 우리의 대응전략과 공군작전의 형태

1. 한국의 군사전략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군사전략은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표방
- ‘능동적 억제’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하며,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
- 능동적 억제의 구체적 적용 방식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를 고려해 재래식 국지도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의 핵·WMD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맞춤형 핵 억제 전략과 4D작전 계획을 수립해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해오고 있음.
-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로 군사·외교적 모든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핵사용 임박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저장고를 예방적으로 선제타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음.
- 4D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영문 약자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5년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4D작전개념을 승인했고, 현재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 1축 : 탐지, 교란, 파괴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 체계. 2축 : 방어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3축 : 보복적 억제 측면에서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체계(KMPR) - 를 구축해 오고 있음.

2. 공군작전 유형

- 공군작전 유형은 19개 유형으로 제공작전,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공수작전, 공중급유작전, 전투탐색구조작전, 우주작전, 정보작전, 감시·정찰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유도탄작전, 특수작전, 기지방호작전, 화생방방호작전, 평화작전, 대해상작전, 사이버작전, 공보작전임.



3. 군사전략의 구현방법과 공군작전의 상관관계

○공군작전은 작전적 수준을 뛰어넘어 전략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공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제기된 한미 맞춤형 전략,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모두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늘 훈련하고 준비해 온 대응체제 구축 및 대비태세의 일부 임. 다만 감시정찰 전력의 부재,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의 부재, 무장을 탑재하기 위한 신형 항공기의 부재가 군사전략의 구현을 위해 걸림돌이 될 것임.

IV. 결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더욱 증대되고 갈수록 그 위협은 더욱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군사적, 비군사적인 방법을 망라한 총력전 체제가 되어야 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



발제 3

대한민국 육군의 대북전략과 대응전력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거부적 억제수단을 중심으로 -



하 대 성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육군중령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다중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 7월 4일에는 화성-14형으로 불리는 IC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전략 하에 거부적 억제 수단으로 3축 체제와 주한미군 THAAD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억제전략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핵억제 전략과 군사적 억제 능력을 검토하면서 육군의 대북전략과 대응전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육군의 능력은 Kill-Chain에 참가할 수 있는 미사일 사령부의 전력과 대량 응징보복의 일환인 일명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특수작전 사령부의 전력으로 제한됨으로써 육군의 전략과 전력은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평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플루토늄 생산량과 우라늄 생산량을 더해 2020년까지 플루토늄탄 6~28개, 우라늄탄 7~64개, 총 13~92개(중간값 52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성능의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과 포, 무인 비행체 등 다

양한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술적 전략적 무기체계로 사용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사일 전력은 현재 총 13종, 1,200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탄도미사일은 9종, 1,000여 기에 이르고 탄도미사일 발사대(TEL)는 스커드 계열이 60대, 노동미사일이 약 35대, 무수단 약 10대, 대포동 계열(N-08, KN-14) 6대 등 총 110여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6년 8월에는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2017년 7월 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3각 체계(nuclea triad) 중 전략폭격기를 제외한 SLBM과 ICBM 기술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과 신포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동식 발사대의 수량을 증대하여 북한의 핵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서 핵전력 위주의 억제 전략으로 군사전략이 변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 북한의 보복적 핵억제 전략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존재 억제를 넘어 파키스탄의 핵억제 전략인 최소 신뢰 억제 전략을 추구하는 단계로 적의 재래식 공격을 해울 경우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ICBM과 SLBM의 실전 배치를 통해 최소억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며 북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법과 군사전략, 북한의 핵위협 발언 등을 통해 볼 때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재래식 전력과 결합하여 핵무기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무기 운용은 평시 한미의 행동을 강압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지전 시에는 자신의 국지전 승리를 보장하고 한미의 군사적 응징을 방지하고자 운용할 것이며 전면전 시에는 전쟁 초기 유리한 전쟁 여건 조성, 중기에는 자신의 이익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연합군의 반격 중단을 강압하고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최후에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될 것이다.

핵무기의 사용은 평시 및 국지전 시 수사적 위협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책적 선택을 제약할 것이며, 핵무기의 시위적 사용은 국지전 또는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강압하기 위해 활용하고 핵무기의 직접적 사용 위협 또는 부분적 사용은 전면전 시 승리를 보장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행동을 거부하고 국제적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한국의 거부적 억제전략과 군사적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억제전략은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 억제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받

는데 있으며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의 수립·발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주한 미군 사드 체계 배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킬체인(1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2축), 대량 응징보복(3축)으로 구성된 3축 체제 개념을 발전시켜 구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추진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이다.

4. 한국의 핵·미사일 억제태세 평가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보복적 억제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다른 동맹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 한국에 존재하는 주한미군 및 미국 시민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적극적인 확장억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약속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성의 문제와 북한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판할 여지가 있다는데 보복적 억제력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거부적 억제의 대표적인 방법인 한국의 탄도미사일 공중요격 능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PAC-3 요격미사일의 경우 2018년 경부터 136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또한 15km 상공에서 1회 요격할 뿐이라서 충분성이 낮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및 장거리 지상 요격미사일은 2020년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 체계는 글로벌 호커 도입(2018~2019년/4대)과 군 정찰위성 확보(2021~2023년/5기), 지대지 미사일 성능개량과 공대지 유도탄 확보, 잠수함이나 함정에 의한 정밀타격 능력 증강 등으로 보강할 계획이나 감시·정찰 능력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확보될 수 있다는 점과 선제공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미군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타격 여부와 시기 제약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핵 대피시설 및 대피훈련 등 민방위(Civil Defense)태세의 경우 검토의 여력이 없을뿐더러 국민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육군의 대북전략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사시 운용하는 것이 군사전략의 목표로, 육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하면 승리하여 국가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상군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것이 육군의 전략목표이다.

육군의 대북전략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지상기반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여 적의 전략표적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며 억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승리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6.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육군의 대응전력

육군의 전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킬체인에 참가하는 타격수단인 탄도미사일 전력과 대량 응징보복에 참가하는 특수임무 여단 전력이다.


육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ATACM와 현무이며 ATACMS는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사거리가 25~165km인 블록 I과 300km인 블록 I A로 2004년 각각 110발을 도입했다.

현무는 현무-1, 현무-2, 현무-3가 있으며 현무-2와 현무-3는 사거리에 따라 A, B, C로 구분된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 현무-2는 사거리 300km, 500km, 800km로 북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현무-3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500km~1,500km이며 2006~2007년 이후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임무 여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기존 1개 여단을 개편하여 규모가 1,000명 내외가 될 것이며 기존 UH-60과 CH-47로 특수작전 항공단을 창설하고 2022년까지 특수작전용 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킬체인 능력에 있어 지상기반 정밀타격 능력의 경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조기에 전력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동식 발사를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한 조기 경보 능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한미협력을 통한 정보능력을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수작전의 경우 유사시 북한 지도부의 위치 파악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수작전헬기,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전폭기 등 미국의 협조 없이는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참수작전을 수행할 경우 북한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박과 의지의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발 시 보복적 억제를 시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육군은 압도적인 재래식 우위를 달성한 가운데 정밀 감시체계와 타격체계, 신에너지 무기체계, 무인 무기체계, 비살상무기체계 등의 전력을 보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핵 민방위 태세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발제 4

대한민국 해군의 대북 전략방안과 전력건설방향 고찰



반길주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장/해군중령

바다를 둘러싼 한반도 위협환경

과거 북한이 주로 해상을 통한 전술적 도발 감행했다면 현재는 이러한 전술적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핵과 탄도탄이라는 전략적 도발까지 감행하는 형태의 위협으로 그 양상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안보 불안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해군은 바다의 주요 안보 행위자로서 바다라는 공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이 먹구름을 몰아내는데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북한이 북핵 및 탄도탄 도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는 위협투사 방식의 완전한 전환이라기보다는 위협 투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많은 탄도탄 발사를 한 2015~16년에도 북한군은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NLL 침범도발을 지속하였다. 북한의 위협 투사 범위 확장과 함께 주목할 부분이 위협 투사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이다. 6·25 전쟁 후 북한의 도발이 2차원적이었다면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지상 혹은 해상 도발을 뛰어넘어 수중, 공중, 나아가 우주라는 공간까지 이용하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탄도탄은 대기권 밖까지 발사된 후 대기권으로 재진입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투사 공간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 위협을 투사하는데 있어 바다라는 공간의 활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내부적 통치력 강화, 외교적 협상력 극대화, 남남갈등 유발, 군사대비태세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지적 도발의 최적의 장소로 바다를 사용하여왔고, 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북한에게 바다라는 공간은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 시험발사를 위한 사격장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핵무기 주요 투발수단으로 탄도탄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다라는 공간은 육지와 달리 공해라는 공공재의 공간이 있고 북한은 이 공간을 탄도탄 발사의 기술적 성공과 전략적 효과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의 유형에 상관없이 바다를 유도탄 시험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ICBM 등 최대사정거리가 긴 유도탄 시험발사의 경우에는 고각발사를 통해 공해상에 탄착되도록 설정하여 도발 장소로써 바다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에게 있어 미사일 사격시험장으로써 바다의 가치는 상대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저장도 도발이나 불완전한 미사일에 대한 단순시험발사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상으로 탄착해점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위협의 강도를 높여 상대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탄착해점을 상대국에 근접시킬 수 있다.

셋째, 위협을 투사하는데 있어 북한에게 바다의 가치는 은밀성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무기이지만 위성 등 상대국의 정보자산으로 포착되면 선제타격의 표적이 될 수 있거나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해 비행 중 요격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은밀성과 기습성 효과가 더 뛰어난 SLBM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이 수발의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작전배치한다면 게임 체인저 수준의 임팩트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북한 위협 완화보다는 북한 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국 변수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대북관계에 있어 과거의 혈맹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방으로서의 관계는 유지하여 서방 진영과의 완충지대를 지속시키고 북한 도발로 인해 창출되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심대한 도발에도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때로는 바다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도발 당사국인 북한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국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비춰왔다. 그렇다면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바다를 최적의 도발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대한민국 해군은 어떠한 대북전략을 구상해야하고 전력건설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북위협 흡수를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처방

한국 해군은 대북 위협 흡수를 위해 “해양 강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해양 강압 전략은 바다 주도권 장악을 목표로 기능적 균형 전력을 구비하여 적의 기술적 그리고 전략적 도발을 동시에 억제 가능한 투트랙 방안 적용하는데 그 중심을 두는 구상이다. 해군의 전략적 처방으로 3대 구성요소인 목표(ends), 수단(means), 방법(ways)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한민국 해군의 대북 전략은 바다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대북위협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하는 목표(ends)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은 바다를 자유로이 사용하되 북한은 바다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

제하고 강압하는 세부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바다라는 공간을 도발의 최적 장소로 상정하여 그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전장의 공간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기능하지 않도록 강압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바다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위해 바다의 위치를 변수 개념으로 상정한 후 유형화하여 바다 장악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ways)은 북한의 전술도발과 전략도발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트랙(two tracks) 임무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전술과 전략 구현이 동시에 가능한 투트랙 방안을 통해 해군이 작전할 수 있는 방안의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 투트랙 방안은 평소에 상시 혹은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전술적 수준의 대북 억제 작전에서 실패하면 전략적 대북 억제에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동격서식 도발에 공세적으로 방어하는 의미가 있다. 셋째,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전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맞춤형 수단(means) 확보를 위해 기능적 균형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북한위협 제거 주도를 위한 전력건설적 처방

전력 건설 방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능적 균형 개념 하에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략 자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해군은 지금까지 전략 자산보다는 전술자산의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하는 전력방향에 기능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 해군은 전략부대와 전략 자산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한다. 북한 위협 중에서 기능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분야가 대탄도탄 능력과 공세적 대잠전 능력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미·일 이지스함처럼 우수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요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북한의 탄도탄 도발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탄도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각발사 등 발사형태도 고차원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의 탄도탄이 한국의 코앞에 와서야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해상에서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층방어가 가능한 SM-3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해군은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봉쇄하고 고속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작전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기능적 균형 차원의 해답은 핵추진 잠수함이 제공해줄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전략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속 수중 항해와 장기 수중 작전 가능이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SLBM 탑재 잠수함을 출항 전부터 감시하고 출항 후에는 은밀 추적하여 도발 징후 시 사전에 수중에서 원점타격할 수 있다는 작전적 강점도 있다. 소위 수중 킬체인(Kill Chain) 구축의 핵심 전력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위협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절실한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상 킬체인 전력 차원에서 준항모강습단 성격의 강습전투단을 확보하여 연중무휴로 지속 가능한 기습성을 달성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강습전투단을 구비하면 중국이 항모전투단에 대한 기능적 균형을 창출시켜 대북 및 대중국 동시 대비라는 시너지적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ㄱ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유권자의 역할



김 상 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국회의원(대구 서구)

요사이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상존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지역의 경우 건국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만, 탄핵과 구속으로 인해 시민의 자존심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후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내한한 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면 시대에 잡아먹힌다.”라며 리더의 혜안과 담대한 용기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보다는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력을 보여준 훌륭한 리더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대통령이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한 분입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색이 짙던 영국을 승전국으로 이끈 리더입니다. 2차대전 직전, 영국 주류 정치인들은 독일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파제라고 보고, 대독일 유화정책을 취했습니다. 처칠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독일의 군사력이 영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군비 증강을 역설했고, 전란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3선)을 거쳐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으며,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에 압승하고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 최초의 흑인(정확하게는 혼혈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 후 핵 무기 감축, 중동평화회담 재개 등에 힘써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재선에 성공하였고, 퇴임 직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총리, 독일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로 정치 감각과 수완이 뛰어나고, 배포도 커서 일명 ‘독일의 마거릿 대처’로 불립니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을 ‘무티(엄마)’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탈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스는 메르켈을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돌아보면, 지도자를 고르는 국민의 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도자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 수립 후 지난 60여 년간 평균 7%가 넘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묵묵히 참았던,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과속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갈등입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먹고산다는 말이 있지만, 그 양상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으로 치닫거나 불필요하다면 갈등은 민주주의에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은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혈연 간, 노사 간, 학벌 간, 이념 간 갈등이 눈에 띄게 심각한 수준이며 정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가 OECD 내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니 이념·세대·지역·노사갈등에 이어 갑을 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빈부격차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 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수능 성적의 격차, 일자리의 격차, 임금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소득·교육 격차는 부유층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교육 인프라가 이 지역에 집중되면서 자산·주거 격차와도 연계됩니다. 하나의 불평등 영역에서 낙오하면 다른 영역에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과 2001년에 각각 저출산 사회,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며 전 세계 211개국 중 208위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갈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세계 51위)에서 2020년 2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득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수입이 적어지고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노인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할 사람, 즉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었다는 말은 그만큼 청장년과 청소년 인구의 비중이 줄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한국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우려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1991~1996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8.3%였는데 반해 2001~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3.9%에 불과합니다. 2000년대를 다시 2008년의 글로벌 위기를 기점으로 나누어보면 2001~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 4.9%에 비해 2011~2015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人事가 곧 리더십의 동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인사 난맥상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또는 장관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왔습니다. 국회, 여론과 언론의 가혹한(?) 검증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갈수록 힘겨워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사 난맥상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 공직은 대통령의 사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책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의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

람이 그 많은 업무에 통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유능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앉히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위임했듯이 대통령은 각료 등 아랫사람들을 믿고 일을 나눠주는 게 순리의 리더십, 효율성의 리더십, 그리고 신뢰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에게 도덕성은 기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리더는 더 이상 국민에게도, 타 공직자에게도 청렴을 이야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재물욕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반 없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비전 제시와 정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대통령과 주권자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강력한 제왕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독단적 결정보다 합의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고, 상대방의 말을 항상 경청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임은 물론, 동시에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와는 다른 차원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국가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발견해야 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통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의 인재를 고르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질을 갖춘 유능한 리더들을 고르는 것은 시민인 유권자의 몫입니다. 올바른 후보자가 올바른 유권자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올바른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만듭니다. 우리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자유의사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卍

제19대, 20대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비들은 서원에서 무엇을 공부하였는가?

- 연경서원 통강록을 중심으로 -

무이구곡 중 제2곡 옥녀봉(玉女峯)



구 본 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연경서원의 강학과 제3세대 유학자

연경서원은 창건된 후 대구지역 유림의 주요한 강학의 장소가 되었다. 이숙량과 전경창은 이 서원에서 강학을 하였는데 이것은 광재검이 전경창에게 한 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재검은 <전계동에게 드리는 제문>에서 “그윽한 곳에 홀연히 서원을 건립하니 갑자년 봄이었네. 이를 경영하여 또한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창건하니 현송(絃誦)할 곳이 있었네. 화암(畵巖)의 봄이 깊고 옥계(玉溪)의 가을이 깊어갈 때 학도들과 함께 유람하며 詩를 읊고 즐거워하였네. 부지런히 학문을 논하며 정성스럽게 권면하고 장려하였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경창에게 강학을 받았던 분은 광재검을 비롯한 서사원, 류요신, 손처눌, 정광천, 이주, 진춘년(全春年: 1552~1592) 등이다. 이것은 이들이 이 서원과 화암(畵巖)에서 머물며 지은 詩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자는 이 서원을 창건하고 몸소 강학을 하였던, 즉 전경창(全慶昌: 1532~1585), 채응린(蔡應麟: 1529~1584), 정사철(鄭師哲: 1530~1593) 3인을 대구유학의 제1세대라 하였고, 이분들로부터 강학을 받았던 광재검(郭再謙: 1547~1616), 서사원(徐思遠: 1550~1615), 류요신(柳堯臣: 1550~1618), 손처약(孫處訥: 1553~1634), 정광천(鄭光天: 1553~1694), 이주(李軾: 1556~1604)

등 6사람을 제2세대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2세대로부터 강학을 받았던 사람을 제3세대라고 하였는데, 제3세대는 137명에 이른다. 제3세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雲根, 李應祺, 李元生, 柳時藩, 陳擘, 全備, 裴褻可, 徐思建, 都聖俞, 楊遇亨, 閔忠國, 柳思溫, 都應俞, 都汝俞, 蔡先見, 鄭變文, 蔣以愿, 任誠, 裴宗緒, 成攬, 丘信立, 郭涌, 閔謙, 徐思選, 都彥俞, 陳暉, 任誠, 李晦根, 崔東岏, 呂克弘, 李景旭, 韓景祺, 崔東嶺, 徐愼, 李之英, 鄭日新, 許士中, 朴忠男, 韓景祚, 裴胤緒, 裴正己, 曹誠, 許廷樞, 洪頤性, 安汝宅, 金景祿, 鄭錕, 李剛, 柳宗彥, 崔東巢, 洪頤正, 蔡模, 崔璣, 朴興男, 都鎬, 李廷運, 李弘中, 柳宗慶, 李之華, 蔡楨, 鄭光亨, 李德容, 李以立, 禹鯤海, 裴映珥, 殷尙敬, 裴士曇, 孫濬, 呂興周, 裴鎭國, 蔡夢硯, 郭淳, 柳宗忱, 李尙眞, 申命休, 李瀾, 蔡戊, 崔湜, 裴尙禮, 李濯, 潘濬, 金允升, 朴宗祐, 蔡楸, 李自新, 朴允悌, 楊四知, 楊四喩, 都慶俞, 李宗樑, 都虎龍, 殷尙敏, 韓興運, 徐時立, 李箴, 洪達承, 裴振維, 裴尙智, 鄭江老, 金善慶, 李德量, 裴映珪, 全弘業, 李俊男, 金宗立, 具懷愼, 李宗文, 孫遜, 鄭鏞, 李潤雨, 蔡先吉, 禹拜善, 朴宗男, 都愼修, 都愼與, 蔡先修, 鄭鍾(午), 鄭錡, 鄭鉉, 禹達海, 李尙晉, 李休運, 金克銘, 李興雨, 崔喆



병암서원 방문(대구시 달서구 새방로 21)
(대구유학 3세대 유학자 도응유 도경유 형제 배향)

2. 연경서원 통강(通講)과 교육

임진왜란 후 연경서원을 중건한 사람들은 이숙량과 진경창, 채응린, 정사철 등에게 수업을 받았던 대구유학의 제2세대들이다. 이들은 서원을 중건하여 제1세대의 강학을 계승하여 통강(通講)을 시행하였다. 통강이란 유학의 독특한 공부 방법으로 경전(經典)이나 시문(詩文) 등의 일정 분량(대체로 卷을 단위로 함)을 스스로 공부한 후 스승의 앞에서 암송(講)을 한 후 지도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연경서원은 1602년(선조 25)에 증건된 후 1605년(선조 38) 이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강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605년 10월에 이르러 서사원, 손처눌, 광재겸, 류요신, 류시번, 류사온, 채몽연, 손린 등이 회합하여 매월 초하루나 보름에 통강을 하기로 하고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통강의 장소로는 선사재(仙查齋)와 연경서원 등에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연경서원에서 실시한 통강은 대구지역 유림들이 행한 통강의 연장선상에 보아야 한다. 논자는 2012년에 당시의 통강록을 정자로 옮겨 발표하였다. 아래 표는 1605년 10월에서 1613년 10월 까지 실시한 통강을 연도, 일자, 장소, 인원 등을 나타낸 것이다.



병암서원 내 강당에서 교육장면



병암서원 알묘(謁廟) 장면

서기(年)	왕 호	월 일	강학장소	참여인원(員)	비 고
1605	선조 38(을사)	11. 18	선사재	49	
1606	선조 39 (병오)	1. 20	선사재	34	
		2. 25	선사재	36	
		3. 25	선사재	43	
		4. 25	연경서원	44	
		5. 25	연경서원	45	통판 조정(趙靖) 참강(參講)
		6. 25	선사재	30	
		7. 25	연경서원	33	
		9. 1	선사재	55	관찰사 류영순(柳永詢), 판관 김헌(金憲) 참강
		10. 15	연경서원	29	
		11. 15	선사재	36	
1607	선조 40 (정미)	1. (17)	(선사재)	(19)	『모당일기』 참고
		4. 15	연경서원	23	
		5. 15	선사재	24	
		윤6. 16	연경서원	31	부사(府使) 정경세(鄭經世) 참강

		7. 16	선사재	26	
		8. 20	달 성	32	
		9. 16	연경서원	36	
		10. 16	선사재	30	
		11. 16	연경서원	26	부사 정경세 참강
		12. 15	미 상	(13)	통강록의 인원을 합산한 것임
1608	선조 40(정미)	1. 16	대구향교	28	부사 정경세 참강
1611	광해군 3 (신해)	11. 1	선사재	24	
		12. 1	선사재	23	
1612	광해군 4 (임자)	1. 5	선사재	16	
		2. 5	연경서원	14	
		미 상	미 상	17	통강록의 인원을 합산한 것임
1613	광해군 5 (계축)	8. 11	선사재	31	부사 김윤안(金允安) 참강
		10. 1	연경서원	34	

위의 표는 7년 동안 실시한 30회의 통강을 정리한 것이다. 위 표에서 1608년 2월부터 1611년 10월까지 통강록이 없는데 이것은 1608년 1월에 선조가 승하였기 때문에 통강을 상기(喪期) 동안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1610년부터 1611년 10월까지의 한강 선생이 박이립(朴而立)으로부터 무고(誣告)를 당하여 변무소를 올리는 등의 일로 통강을 할 겨를이 없었다. 1611년 11월부터 통강을 다시 시작하여 1613년 10월까지 시행하였다. 1613년 11월부터는 서사원의 병으로 인하여 통강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1615년 서사원이 타계한 후에서 손처눌이 연경서원과 영모당(永慕堂)에서 1634년까지 시행하였다. 이로서 1605년부터 손처눌이 타계한 1634년까지 대구지역에서는 30년간 통강을 실시하였다.



연경서원의 강학을 기록한 통강록(1605년)

통강을 실시할 때는 여씨향약의 통강 규정을 따랐다. 먼저 공자와 송나라 육군자(六君子)의 화상(畵像)에 배례를 한 후에 강당에 올라 강(講)을 하였다. 통강을 할 때의 강장(講長)은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1550~1615)과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1553~1634)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유사(有司) 2명과 직월(直月: 그 달의 당번)을 두었다. 손처눌의 「연보」에는 통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규 및 약조는 한결같이 여러 선정(先正)이 지은 바에 따랐다. 매월 초하루에 혹 연경서원에 모이기도 하였고, 혹 선사재에서 모이기도 하였다. 성현의 잠계(箴戒)를 강당의 벽 위에 걸어 놓고 북



쪽의 벽 아래 스승의 자리를 설치한다. 선생(모당)이 낙재 선생과 나란히 앉으면 제생(諸生: 학생) 들은 앞으로 나와서 배례(拜禮)를 하고, 이어서 3면으로 나누어 서서 서로 향하여 읍례(揖禮)를 한다. 자리를 정하고 앉으면 유사(有司)가 소리 내어 ‘백록동규(白鹿洞規)’와 ‘학교모범(學校模範)’을 한번 읽는다. 직월(直月)이 여러 생도의 선악(善惡)을 기록한 장부를 올리면 선행(善行)을 한 자에게는 장려하고 권면하며 악행(惡行)을 한 자는 경계하고 가르친다. 그 후에 제생들은 각기 읽은 책으로 진강(進講)을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맞잡고 바르게 앉아서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할 수 없다. 성현의 글과 사학(史學)이 아니면 강(講)을 허락하지 않고, 혹 연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면 사유를 적어 유사에게 고하여 스승에게 알린다.

위의 글은 통강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3. 학교모범과 통강의 과목

통강을 하기 전에 유사가 읽은 학교모범은 서사원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원작자는 율곡(栗谷) 이이(李珣)다. 서사원이 필사하여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모범은 다음과 같다.

1. 입지(立志): 학문을 갈고 닦을 뜻을 세우고 목표를 바르게 한다.
2. 검신(檢身): 선비로서의 몸가짐과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한다.
3. 글 읽기(讀書): 글을 읽을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
4. 신언(慎言): 말버릇을 신중하게 하여 예법에 유익한 말을 가려서 한다.
5. 존심(存心): 안으로 마음을 다잡아 외물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사친(事親): 부모를 효심으로 섬긴다.
7. 사사(事師): 스승을 도리를 다하여 섬긴다.
8. 택우(擇友): 벗을 가려서 사귀고 교우의 예를 다한다.
9. 거가(居家): 집안을 윤리에 어긋남이 없이 잘 다스려야 한다.
10. 접인(接人): 사람을 대함에 있어 예의를 준수한다.
11. 응과(應科): 뜻있는 선비가 몰두할 것은 아니나 과거를 응시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공을 이루어야 하고 시간을 허비하여서는 안 된다.
12. 수의(守義): 이(利)와 의(義)를 잘 분별하여 의(義)를 지킨다.
13. 상충(尚忠): 충직함과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가 하나가 되어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14. 독경(篤敬): 공경을 돈독히 하여 그침이 없어야 한다.
15. 거학(居學):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강령에 어긋남이 없이 근학에 힘쓴다.
16. 독법(讀法): 글을 읽는 정해진 방법(혹은 과정)에 따라 공부에 힘쓴다.

통강록에 보이는 교재를 살펴보면 『소학』, 『대학』, 『논어』, 『맹자』, 『맹자대문(孟子大文)』, 『중

용』, 『시경』, 『서경』, 『주역』, 『춘추』 등으로 유학의 기본 경전은 모두 강(講)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통감(通鑑)』, 『고문진보(古文眞寶)』, 『가례(家禮)』, 『문장계범(文章軌範)』, 『훈몽절구(訓蒙絕句)』, <한문(韓文: 韓愈의 글)>, <문산책(文山策)> 도 강(講)을 하였다. 성리학과 관계되는 서적으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주자서절요(朱子書切要)』(朱書)를 강(講)하였고, 주자의 시문으로는 <재거감흥(齋居感興, 20수)>, <무이도가(武夷權歌: 九曲權歌)>, <백록동부(白鹿洞賦)>를 강(講)하였다. 또 소강절의 <안락음(安樂吟)>과 귀산양씨(龜山陽氏)의 <차일부재득시학자(此日不再得示學者)>도 강(講)을 하였다.

그리고 잠(箴), 명(銘), 찬(贊)도 강(講)을 하였는데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경재잠(敬齋箴)>, <동·서명(東·西銘)>, <육군자화상찬(六君子畫像贊)>, <취성정화병찬(聚星亭畫屏贊)>, <심경찬(心經贊)>, <역원상찬(易原象贊)>, <역술지찬(易述旨贊)>, <역계류찬(易稽類贊)>이다. 그리고 회재 이언적의 <원조오잠(元朝五箴)>도 강(講)을 하였다.

제술(製述)은 시(詩), 부(賦), 의(疑), 책(策), 논(論)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별도로 <시(詩) 방당일감개(方塘一鑑開)>, <시(詩) 한인유관수(閑人有官守)>, <시(詩) 구서극기자(勅書劇嗜炙)>, <시(詩) 위단고삼왕(爲壇告三王)>, <구곡시(九曲詩)>, <백구시(白駒詩)>, <광풍시(光風詩)>, <연경시(燕京詩)>, <시(詩) 백담교관소정기(白塔橋觀騷程記)>, <부(賦) 효제위인지본(孝悌爲仁之本)>, <부(賦) 구서극기자(勅書劇嗜炙)>, <부(賦) 산경(山徑)>, <부(賦) 봉상우인(鳳翔于仞)>, <부(賦) 위단고삼왕(爲壇告三王)>, <견득사의부(見得思義賦)>, <부(賦) 구곡도(九曲圖)>, <백구부(白駒賦)>, <음농부(吟弄賦)>, <선양부(善養賦)>, <부(賦) 형자보치지법(刑者輔治之法)>를 시제(試製)로 실시하였다.

통강의 평가[考講]는 순통(純通), 통(通), 순략(純略), 략(略), 순조(純粗), 조(粗), 불(不)의 7단계로 하였다. 주사(朱書)는 일순(一巡)에서 십순(十巡), 시(詩)·부(賦)·의(疑)·책(策)·론(論)의 제술은 일도(一度)에서 십도(十度)로 평가하였다. 시제(試製)는 대체로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이중(二中), 이하(二下)로 평가하였다.

4. 제술(製述)의 사례

제술은 시제(試題), 즉 제목에 따라 글을 짓는 것을 말한다. 대구유학의 제3세대인 동고(東皐) 서사선(徐思選)의 문집에는 1606년(선조 39, 병오) 연경서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은 다음과 같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서사선은 대구유학의 1세대의 한 분인 서식(徐湜: 1530~1593)의 아들로 서사원의 중



무이산 구곡 안내판



제(從弟)이다. 서식은 전경창의 우인(友人)으로 생원과 진사 양시(兩試)에 합격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타계하였다.

시의 제목은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병오년(1605) 겨울 통강을 할 때 지은 것이다.>이다. 즉 주자(朱子)가 지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의 배경이 된 무이구곡을 그린 그림[圖]을 보고 여기에 대하여 글을 짓는 것이다. 서사선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地之相去千餘里	땅이 서로 떨어짐이 천여 리나 되고
歲之相後千餘載	세월이 서로 뒤짐이 천여 년 되나니
不有天下丹青手	천하의 훌륭한 화공이 있지 않았다면
異境安得移於斯	절경을 어찌 여기 옮길 수 있으랴.
滄洲遺跡入指點	창주의 유적을 일일이 가리킬 수 있으니
曲曲依然沿溯時	굽이마다 예전처럼 근원을 따라 오르네.
此山名自西京前	이 산의 이름은 서경이전에 있었으나
仙曹道流連棲遲	선인과 도사들이 줄지어 깃들었네.
曾孫一罷幔亭會	증손이 한번 만정의 모임을 과한 뒤
曲有三三空絕奇	아홉 구비 골짜기만 부질없이 빼어나네.
虹橋消息問無憑	홍교의 소식을 물을 길 없는데
玉女修容知爲誰	옥녀봉이 단장함은 누구를 위함일까.
船留架壑不記年	신선의 배가 골짜기에 몇 해나 묵었던가
聲斷金鷄難見之	소리가 금계에서 끊어져 찾기 어렵네.
平林烟暗勢益高	평림의 어둑한 안개미 기세가 더욱 높고
碧灣花殘春欲衰	벽만(碧灣)에 꽃이 지니 봄은 저물려 하는구나.
天壺相與大隱連	천호봉(天壺峯)은 대은병(大隱屏)과 이어졌고
鐵笛更向樓巖吹	쇠 피리를 다시 고루암(鼓樓巖)을 향해 분다네.
柔麻依舊崔絕頂	상마가 예전 같은 곳 최정상에 오르니
別有天地誰能窺	인간의 별천지를 누가 능히 엿볼 것인가
風流有我紫陽翁	풍류의 자양옹[朱子]께서는
爲買漁船篙櫓施	고깃배를 사셔서 돛대와 노를 갖추었네.
寒潭風月冷蕭蕭	차가운 담(潭)의 풍월은 싸늘하고 쓸쓸한데
此間誰把羊裘遺	여기에 누가 양가죽 옷을 보내주랴.
靈踪異跡摠領畧	신령하고 기이한 종적 모두 다 알았으니
景物盡入瓊瑤詞	경물이 모두 아름답대운 시 속에 들어왔구나.
居然泉石去來頻	내 천석(泉石)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니

欸乃聲中無限思	뱃노래 소리 속에 무한한 생각 깃들었네.
山顏一夕夜壑空	산 무너진 저녁에 밤 골짜기는 텅 비었고
九折灘上風淒其	아홉 구비 여울 가에는 바람이 처량하구나.
祗今形勝屬龍眠	이제는 형승이 용면(龍眠)에 들어가니
數幅幻出眞容儀	몇 폭의 그림이 참 모습을 드러내었네.
我亦得之垂堂中	나 또한 이를 얻어 당중에 걸어두니
頓覺山水膏肓醫	산수 간의 고향(膏肓)이 문득 낫는 줄 알겠구나.
一歎又歎三歎息	한번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세 번 탄식하구나
當年恨不親追隨	당시에 친히 따르지 못함이 한스럽구나.
男兒他日徇觀周	남아가 혹여 다른 날 중국을 유람한다면
願將斯圖尋武夷	이 그림 갖고서 무이(武夷)를 찾기를 원한다네.

5.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무이구곡 발문

이중구(李仲久)가 소장한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이 쓴 발문(跋文)이 첨부된 《무이지(武夷志)》의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뒤에 쓰다.

“나에게 이전부터 〈구곡도(九曲圖)〉가 있었는데, 이는 이 선생이 발문을 쓰신 것으로 이담(李湛: 字는 靜存)이 소장한 중국본의 모사품이다. 이 그림을 대하면 정말이지 이른바 시야에 가득 들어온 구름이며, 안개가 정묘의 극치를 다하여 마치 귓전에 소리까지 들리는 듯 황홀하다. 또 중국본 책자 속에서 무이산의 총도(總圖)와 서원도(書院圖)를 발견하였는데, 지난해 화산(花山 안동(安東)의 판 이름)에 있을 때 우연히 화가를 만나 이것까지 아울러 《무이지》에 본떠 그려 넣게 하고 거기에 이 선생의 발문을 첨부하였다. 한가로울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열람하고 있노라면 내 몸이 외진 조선 땅, 그것도 400여 년 뒤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까맣게 잊곤 한다. 그러니 400년 전 그 당시 매일 주 선생을 모시고 도를 강론하면서 무이구곡에서 노래 부르며 생활하던 사람들은 그 기상과 흥미가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그것을 느끼며 상상하던 끝에 이 그림의 전말을 기록한다. 기유년(1609, 광해군1) 3월 정미일에 정구는 쓰다.”

1960년 대구생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졸 철학박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연구위원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전문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 산학협력교수



메타세쿼이아 숲에서

이토록 찬란한 가을과 흠뻑 눈 맞은 적 있었던가
억만년 전 쥐라기 공룡이 뚜벅뚜벅 걸어간 그 길
커다란 발자국마다 불로 돌아난 메타세쿼이아

해거름에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찾아와서
딱따그르 딱따그르르 눈부신 기둥 쪼아대는 것을
숨죽인 채 통방울눈 굴리며 바라보았다네

천국으로 열린 문 앞에서 왜 서성거리고 있는 걸까
불계불계 타오르던 그대는, 나는
입겨드랑이 사이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고 깃털이었네

내 이름자 앞에 ‘메타*’ 라 붙여 준 그대와 함께
억만년 전 공룡 발자국 따라 숲속을 거닐다가
젊은 날로의 회귀를 꿈꾸었네, 불멸의 사랑을 약속했네

* ‘후에’, ‘함께’, ‘변화’ 라는 뜻의 접두어.



장 하 빈
시인

1997년 《시와 시학》 신인상 등단
시집 『비, 혹은 얼룩말』 『까지 낙관』
시와시학상 동인상 · 대구시인협회상 수상

연리지

한 사람을 사랑했네, 호젓한 오어사 한켠
발갹게 제 몸 태우는 배롱나무 한 그루
세월도 지우지 못한 흔적들이 피고 있네

기나 긴 기다림의 시간 산자락에 저리 묻혀
고요한 저수지 깊이 그림 한 폭 그려 놓고
어롱진 마음 다스리듯 물속 내려다본다

한 사람을 그리워했네, 굽은 가지 서로 엉켜
온몸 부둥켜안고 마침내 하나 되는
선명한 붉은 빛깔의 꽃 뜨겁게 피고 있네



윤 경 희
시조시인

경북 경주 출생

유심 신인문학상, 대구예술상 문학부문, 이영도 신인문학상 수상

시조집 『비의시간』 『붉은편지』 『태양의 혀』

대구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대구시조시인협회, 일일문학회 회원
분지사람들, 영언 시조 동인

덤



장 호 병
대구문인협회 회장/수필가

선이 보이지 않는 점의 연속이듯, 삶은 덤의 연속이다.

눈 뜨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밝은 하루, 역시 덤이다. 자궁에 착상도 해보지 못한 한낱한시의 동료가 이미 수억에 이른다. 그뿐인가. 태중에서 유산이 되기도 하고, 호적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한 이가 부지기수이다. 고고의 성을 발하여 이 세상에 와서 제힘으로 생을 이어갈 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물주가 혹은 하느님이 일단 ‘너 좀 와야겠어.’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남겨둔 필생의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응해야 하는 것이 생명 가진 것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기억 이전의 사실이긴 하지만, 우선 이 세상에 오도록 점지 받은 것 — 부모를 왕후장상으로 혹은 갑남을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날 것인가는 물론 — 그 자체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닐 것이다.

심장의 동·정맥이 뒤바뀌거나 판막이 비정상인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듣는다. 조물주가 그 많고 많은 생명을 창조하는 데 표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중시하겠는가. 선천성이란 관형어가 따라붙는 예외의 경우를 보노라면, 태어날 때 이 가이드라인 안에 들었다는 사실 하나도 엄청난 덤의 덕분이다.

덩을 허락할 것인가, 거두어들이 것인가가 조물주만의 고유한 행사는 아니다.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손길에서 목숨이 거두어져 버린 생명이 어디 한둘이라. 적과라는 이름으로 도중하차를 당해야 했던 미숙과가 있고, 구조조정이란 미명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도 있다. 잡초라는 이름으로 뽑혀나간 많은 풀들의 운명은 또 어찌랴. 우리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조물주에게 억울함을 따질 수 없듯이, 그 희생 또한 하소연할 데가 없다. 무릇 생명 가진 것들의 현재는 다 덩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현업으로부터의 정년 이후 삶을 흔히 덩이라 말한다.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사람은 자신 앞에 놓여진, 공으로의 삶을 덩이라 일컫기도 한다. 덩인 만큼 남은 삶을 유유자적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살겠다고 말한다. 식당에서 덩으로 요구한 찬은, 먹어도 그만 남겨도 그만이 아니다. 말끔히 접시를 비워야 한다. 비록 덩으로 주어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여길 일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삶도 곰곰이 따져보면 덩이 아니었던가. 덩이라는 그 삶도 결국 앞의 덩의 연장일 뿐이다.

앞의 덩은 따라올 뒷덩의 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뒷덩의 공을 가로채 오히려 멩에가 되기도 한다. 앞의 덩이 원금이라면 뒤의 덩은 이자와 같은 것, 그래서 인생은 항상 원리금으로 쌓여간다. 이자에 현혹되어 원금을 날리듯, 쌓아온 피나는 노력을 한방에 날리지 않을 수 없는 공직자나 금융인들의 일그러진 초상들을 화면에서 만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리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하물며 생의 크기나 한계를 안다는 것은 더더구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명문대가의 자손으로 태어났거나,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 허세부릴 일은 아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많은 게 허여되었다 해도 다 덩에 지나지 않는다. 지지리 궁상맞은 집에서 평생 동안 가난의 땃국을 떨치지 못하는 삶,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막장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이 자리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워 안달하는 덩이 아니던가.

실체적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는 게 덩이다. 더 이상의 덩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덤에 드는 일, 비록 작고 작은 덩이라 할지라도 겸허히 그리고 치열하게 그 덩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

수필집 <웃는 연습> <하프 플라워> <실키의 어느 하루> <너인 듯한 나>와 이론서 <글, 맛있게 쓰기>, 평론집 <로고스@카오스>, 영문 에세이집 <Half Flower>가 있다.

대구수필문학상과 대구문학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대구문인협회장, 대구 교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정의를 가르쳐 준 2·28민주운동

이 다 감

대구강동초등학교 4학년

‘어떡하지?’, ‘말해야 될까?’, ‘나 하나가 뭐 그리 큰 힘이 되겠어?’ ...

오늘 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옳지 못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고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냥 지나쳐버린 용기 없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 방을 청소하면서 빗바랜 흑백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쯤 되 보이는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빠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무언가 결의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진 밑에는 ‘1960년 2월 28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월 28일? 무슨 날인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낮고 낮은 건물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저 뒤에서 ‘와~이승만 독재정부 물러가라!’ 하며 언니 오빠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오빠를 붙잡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는 어디예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상한 꼬마구나. 여기는 대구 중앙통이고, 1960년 2월 28일이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자유당의 불법, 부정을 막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란다.”

“오늘은 일요일, 학교가 쉬는 날인데도 야당 후보의 연설 유세장에 학생들이 갈까 봐 각종 핑계를 대며 학교에 나오라고 했단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학교를 뛰쳐나와 여기에 있단다.”

“그럼 지금이 1960년이라구요? 여기는 할아버지 사진 속.....?”



“오, 오빠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달원. 이달원인데? 왜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 할아버지? 이럴 수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가봐야 한단다. 꼬마야! 여기는 위험하니 빨리 집에 들어가거라.”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학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독재정부 물러나라.”를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까악! 안돼!”

“괜찮니? 꿈을 꾸 모양이구나.”

엄마였습니다.

“꿈 속에서 할아…… 엄마! 2·28 민주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2·28 민주운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운동이란단다. 이승만 정권은 12년간 집권을 했지만 처음과 달리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독재를 계속하기 위해 개헌을 하고 부정 선거 운동을 하였지. 이에 대구의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민주 운동을 일으켰단다. 물론 대구시민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었단다. 2·28 민주 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3·15마산 의거, 4·19혁명을 통해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단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역사를 바꾼 훌륭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나를 괴롭혔던 그 고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대구의 언니, 오빠들 손에는 ‘정의’와 ‘용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 친구들에게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언니 오빠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먼저 나서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정의롭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용기 내어 언니, 오빠들처럼 소리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곳에서

정수진

대구성서중학교 3학년

어찌하오 어찌하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그곳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너도 나도 길을 잃고
숨죽인 채 고개 떨군 그곳에서

거짓과 불신에 눈멀고
강제와 강압에 귀멀어
절망이 되어 버린 그곳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울분의 절규가
2월의 마지막 날
푸르른 교정에서
피 끓는 붉은 가슴으로
그곳을 뒤덮었다

그 애끓는 민주주의의 간절함이
그 푸르른 정의의 열망이
희망의 손에 손잡고
간절한 마음과 마음을 모아
그곳에서 언제나 푸르고 정의롭게
민주주의를 우뚝 세웠다 卍

2017 상반기 2·28인문학 강좌 개최(제27~29차)

지난 7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3일에 걸쳐 상반기 2·28 인문학 강좌가 본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2·28인문학 강좌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회원을 포함한 시민 40~50여 명이 매회 참석하였고, 강의마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수강하였다.

제27차 강좌에서는 대가야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잘 부각되지 않았던 가야사의 중요성과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의 발굴과정, 현 정부의 발굴의지, 최근의 발굴현황과 가야문화권의 범위와 관련 연구자로서의 바람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강의되었으며, 2일차 강좌에서는 생명문화에서의 기술적인측면과 윤리적인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 강의를 통해 생명의 의미와 나아가서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3일차 강좌에서는 국외로 반출되어 되찾지 못한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과 그 어려움을 다루어 우리가 과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 강좌는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강의시간	내용	강사	프로필
7월 11일(화) 14:00~16:00 (2시간)	가야사	이태근	전 고령군수
7월 12일(수) 14:00~16:00 (2시간)	우리의 생명문화 이대로 좋은가?	이창영	전 매일신문 사장 경산천주교회 주임신부
7월 13일(목) 14:00~16:00 (2시간)	문화주권시대의 국외문화재	박영석	전 대구MBC 사장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원장



제9차 2·28고교학생 민주시민 아카데미



금년 전반기 2·28민주시민아카데미가 7월 14일(금) 본회 기념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시내 9개 고등학교 대표학생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전시관 관람 및 해설 청취, 2·28관련 동영상 시청과 2시간의 특별강의 수강 등으로 학생들은 2·28민주운동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한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가학교와 강의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대구공고: 5명, 대구고: 5명, 경북공고: 3명, 대구농업마이스터고: 3명, 대구여고: 5명, 경북고: 5명, 대구상원고: 4명, 경북여고: 6명, 강북고: 5명)

구분	시간	강좌명	강사
첫째시간	09:50~10:20 (30분)	2·28기념전시관 체험	정일수 사무총장 (2·28기념사업회)
둘째시간	10:30~10:50 (20분)	2·28동영상 시청 (2·28민주운동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셋째시간	11:00~12:00 (60분)	민주주의와 청년	노동일 2·28공동의장 (전 경북대학교 총장)
	12:00~13:00 (60분)	점심(도시락)	
넷째시간	13:00~14:00 (60분)	인생의 GPS	송재기 경북대교수 (전 경북대국제교류원장)



2·28차세대 주역 워크숍 개최

2·28시민정신확산 사업의 일환인 시민캠프가 7월 4일(화)과 9월 14일(목) 저녁시간에 본회 기념회관 강당, 대구고등학교 동창회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본 회 기념관 강당에서 개최된 1차 시민캠프에서는 경북고등학교 53회 동기회부터 각 기별 간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영상 시청, 상호인사 및 당시 주역선배(경북고 43회 홍종흠)의 특강에 이어 동문이기도 한 노동일 공동의장의 주관 아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차 캠프 역시 노동일 공동의장의 2·28 현안 설명에 이어 2·28주역 중의 한 사람인 백진호 선배(대구고 2회)의 특강을 들으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더 나아가 2·28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기존의 정회원이 대부분 2·28주역세대로서 70대의 연세가 있는 만큼 보다 진취적인 젊은 세대로의 확장과 더불어 사업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 우선 대구 시내 주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통한 시민정신 확산사업을 전개키로 한 결과이다.

동창회 간부들은 2·28주체학교의 졸업생이면서도 미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중 1~2회 더 개최 될 예정이다.



2017 2·28민주운동 하반기 워크숍 실시

9월 20일(수) 탐방행사인 하반기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이번 행선지는 여수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정회원은 물론 2·28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신청도 많아 예정인원 80명을 초과하여 신청을 거절해야 하는 애로도 있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웬만큼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 탐방의 첫 일정으로 여수시청이 운영하는 “이순신학교” 교육담당자의 특별강의인 만큼, 영상을 곁들인 강의는 재미와 흥미를 높여 이순신 장군을 다시 알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참여자들의 열정과 성숙된 질서의식이 한결 돋보이는 행사였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7월 3일(월)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한 「2·28정신을 계승하는 정의로운 대구교육공동체」라는 소주제 하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가 교육청 여민실(동관 3층)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전현임 의장 및 임원 등 21명이 참석하고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감 이하 다수의 간부직원과 2·28주체 8개 고교의 교장 전원이 참석하였다.

우동기 교육감의 “이 자리가 가장 긴장된 자리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서두 인사와 노동 일 공동의장의 “행복감은 공동체 안에서 느낄 때 의미가 있겠고 그 운영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하고, 그 바탕에 2·28의 민주정신이 필요할 것”이라는 답사에 이어 교육청의 2017년 행복역량교육의 배경과 추진방향, 체계 등의 설명이 있는 후, 교육방침에 대한 건의, 2·28의 현안설명,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바라는 사항 등 열띤 논의와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우동기 교육감은 “2·28을 모태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히고 마치는 과정에서 머지않아 개관할 대구교육박물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수집 중인 유물들을 우리 2·28 참석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선심도 베풀었다.



2·28주역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다

지난 7월 6일 노동일 공동의장과 최용호, 홍종흠 고문은 국회 귀빈식당을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2·28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일정 및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도 동석하였다.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회 방문

우리 2·28기념사업회 담당부처인 대구시청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문화예술정책과장, 정수동 주무관이 신임인사차 7월 13일(목) 사업회를 방문하였다. 한만수 신임국장은 종전 문화예술정책과장에서 바로 승진함으로써 2·28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는 처지인지라 우리 사업회로서는 특히 환영할만하다 할 것이다.



창작연극 『하늘이 붉었던 날』

7월 29일(토) 창작연극 『하늘이 붉었던 날』의 임지윤 연출자와 제작진이 우리 기념관을 찾았다. 2·28을 소재로 한 이 연극은 2년여 전 초연하였으나 당시의 부족한 점을 보완, 재구성하고자 기념관을 세세히 둘러보고 또한 주역중의 한 분인 최용호 고문을 인터뷰하였다.

이 연극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대학로 소재 소극장에서 공연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한 올의 실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NevurN[®]



삼일방직 네번은 특허등록된 난연성 원단으로 원사에서 제직, 염색, 가공까지 일관생산체계를 갖추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 원단은 산업현장 및 캠핑 등 레저생활을 위한 아웃도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성 화재, 전기아크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잘 타지 않고 녹지 않는 영구적인 난연기능의 소재입니다. 뛰어난 열·화상 방어력과 마모 저항성, 내구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발생을 차단하고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함유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인체 친화적입니다. 밝은 색상으로 쉽게 염색이 가능해 산업 안전복, 보호복은 물론 레저용 패션의류 제작이 가능합니다.

 **삼일방직주식회사**

본사·공장: 경북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39 전화: 053)810-7255 팩스: 053)817-3139

비산 공장: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1길 56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8층 전화: 02)528-4431

www.samil-sp.co.kr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2017, DGB대구은행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립니다

DGB대구은행은 언제나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DGB Daegu Bank 50th Anniversary